

1996년 미국의 손해보험 사정(요지)

(전 호에서 계속)

□ 종목별 손해

1. 화재 손해

미국 내에서는 15초에 1건씩 소방서가 대응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70초에 1건이 일어나

며, 123분에 1인의 시민이 소사하고, 19분에 1인이 부상하고 있다. 소방서가 대응한 1994년의 화재건수는 전년보다 5.2%가 증가한 205만4천5백건이며, 화재손해액은 전년의 113억달러에서 120억달러를 초과하여 증가하였다. (표1)

【표 1】 미국의 화재손해 : 1950 - 1994*

년	재물손해액	인구1인당손해액	년	재물손해액	인구1인당손해액
1950	648,000,000	4.27	1986	8,488,000,000	35.21
1960	1,107,824,000	6.16	1987	8,504,166,000	34.96
1970	2,238,000,000	11.41	1988	9,626,397,000	39.11
1980	5,579,000,000	24.56	1989	9,514,118,634	38.33
1981	5,625,000,000	24.53	1990	9,494,967,307	38.26
1982	\$ 5,894,000,000	\$ 25.61	1991	11,302,367,672	44.83
1983	6,320,000,000	27.20	1992	13,588,427,107	48.24
1984	7,601,701,000	32.35	1993	11,331,266,216	43.96
1985	7,752,525,000	32.70	1994	12,332,603,994	47.37

* 무보험 및 미보고의 손해에 대해서도 산입. 출처 : 보험서비스사무소 ; 미국 1인당 손해액은 보험정보협회에 의함.

NFPA의 연차조사에 의하면, 1994년에 미국 내의 화재에 의한 사망자는 4,275명이고 전년보다 7.8% 감소하였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볼 경우, 유아와 64세 이상의 노인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 연령층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연기의 흡인으로 폐가 쉽게 손상받기 때문이다. 또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이 소방서에 보고되지 않음으로써 그 수치에 관한 추정치가 낮으나, 27,250명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요리가 가장 많으나, 주택화재의 사망 원인으로는 담배불의 부주의가 1위

이다.

1994년의 건물 화재는 전년보다 1.2% 줄어든 614,000건이었다. 그 중 86,000건이 방화 혹은 방화의심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방화·방화의심에 기인한 화재 사망자는 1993년부터 1.8% 감소하여 550명이 되었다.(표2)

방화·방화의심에 의한 1994년의 재물손해액은 전년보다 38.5% 감소하여 15억달러가 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사우스 캘리포니아의 임야화재나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화재·폭발사건과 같은 대규모 화재가 1994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2】 보고된 화재 원인 : 1993년

	주 택				비 주 택			
	건수	사망	부상	금전손해	건수	사망	부상	금전손해
방화/ 방화의심	11.0%	13.0%	9.0%	14.0%	17.6%	8.3%	11.2%	18.0%
어린이 불장난	4.0	7.0	11.0	4.0	2.7	0.5	1.9	0.8
담배	5.0	16.0	10.0	5.0	3.0	2.0	3.6	1.2
난방	15.0	10.0	9.0	10.0	0.9	1.8	3.7	2.6
요리	20.0	7.0	22.0	7.0	1.1	0.6	5.1	1.1
전기배선	8.0	6.0	7.0	11.0	3.5	2.0	6.2	8.0
가전제품	6.0	2.0	5.0	4.0	0.8	0.6	2.2	1.5
모닥불	5.0	3.0	5.0	5.0	6.4	3.2	7.3	6.0
기타 열, 스파크	1.2	0.6	1.2	0.9	3.9	2.8	3.9	3.1
기타 기구	1.1	1.2	0.9	1.5	5.3	2.9	11.7	6.4
자연 현상	1.8	0.2	0.6	3.0	1.2	0.7	1.6	2.4
연소	3.0	0.7	0.5	10.0	2.0	1.6	10.1	4.7
불명	18.0	33.0	19.0	25.0	50.0	29.3	23.2	41.0

주 : 각항의 합계는 단수처리를 위해 100%가 되지 않음.

출전 : 미국소방청:전국화재보고시스템

1994년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는 51건이며, 307명이 사망하였다. 이 51건 중 32건은 주택건물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93명이었다. 남은 19건은 비주택건물 화재 및 비건물 화재이며 114명이 사망했다.

대규모 주택 화재에 있어서 사망자의 대부분은 취침 준비 중이라든가 취침 중의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의 사이에 사망한 경우가 많다. 1994년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시간대는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이며, 이 시간대에 일어난 화재로 14명의 어린이를 포함 48명이 사망했다.

2. 1994년 이상재해 기록

American Insurance Service Group사의 재산보험 크레임 서비스부에 의하면, 1994년에 미국내의 이상재해에 의한 부보손해는 17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허리케인 앤드류나 이니키 및 LA폭동이 일어난 1992년에 이어 2번째로 나쁜 것으로 되어 있다.

1994년의 이상재해 중 피해총액에서 최대의 것은 125억달러의 부보손해를 가져온 노스리지지진이다. 그 외, 겨울의 폭풍우,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 및 베릴, 허리케인 · 고든이 주목될 이상재해로 열거된다.

1994년에 미국에 엄습한 허리케인은 3건이었다. 이수치는 평균 이하였지만 미국 남동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그 중에서도 허리케인 · 고든은 하티에서만 1,122명의 사상자를 내고, 또한 그 진로상에서 미국인 8명을 포함하여 23명이 사망했다. 11월 8일에 발생한 고든은 플로리다주에 농작물을 중심으로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가져다 준 것 외에 노스 캐롤라이나주 및 버지니아주 연안에서 대규모의 해안 침식을 일으켰다.(표3)

【표 3】 이상재해의 합계 부보손해액 1985 - 1994년

(단위 : 100만달러)

년	명목가액	1994년 가격	년	명목가액	1994년 가격
1985	2,816	3,879	1990	2,825	3,203
1986	872	1,179	1991	4,723	5,139
1987	905	1,181	1992	22,970	24,263
1988	1,409	1,765	1993	5,705	5,851
1989	7,642	9,133	1994	17,010	17,010

출전 : American Insurance Service Group사의 재산보험 크레임 서비스부, 보험정보협회